

자랑하고싶은 우리동네의 아름다운 곳

세빛섬(플로팅 아일랜드, Floating Island)는 2006년 서울 시민 김은성씨의 제안으로 서울시에서 수익형 민자사업(BTO)으로 만든 인공섬이다. 비스타(Vista), 비바(Viva), 테라(Terra)의 3개로 나뉘어 있다.



서울의 한강에 있는 세빛섬

<figure><figcaption>

다음에 제시된 화면으로 구성되는 HTML 파일 1개를 작성하여 압축하지 않고 그냥 첨부하여 제출한다.

메일 제목 : 웹실습1-XXX

파일명: homework1.html



<video> 태그

이 문서는 김 정현에 의해 HTML5 와 CSS3 기술을 사용하여 2020년 1월 3일에 작성하였습니다.(ver 1.0)

 태그